한국인구학 제26권 제2호(2003년), pp. 63~90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박경숙** · 김영혜***

이 연구는 결혼, 출산, 취업 시기와 순서에 기초하여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의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생애 유형의 변화와 집단간 차이에 유의하면서 결혼코호트와 여성의 가족·개인 특성에 따라 생애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제4차 여성 취업실태조사'이다.

초혼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생애는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결혼과 출산기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한 여성(일·가족역할 중복형, 13.7%), 결혼 전에 일하였지만 출산/육아기간 동안 일을 그만두고, 공백기 이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 여성(M형, 18.6%), 결혼과 출산 직후 일을 그만 둔 여성(잠재 M형, 26.9%), 결혼 전에 일한 경험이 없지만 결혼/육아 이후 일자리를 처음 가진 여성(양육 후 입직형, 23.5%), 마지막으로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17.3%)이다.

각 생애유형의 상대적 구성은 결혼코호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최근의 결혼코호트일수록 M형(잠재 M형 포함)이 지배적인 생애 유형이 되고 있다. 양육 후 처음 일을 하거나,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최근 결혼코호트일수록 작아지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결혼한 여성에서 일가족 중복형의 생애 패턴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동일 코호트 내에서 살펴보면, 생애 유형은 여성의 교육수준, 성장기 일하는 여성의 역할 모델의 존재(어머니의 취업), 남편과 여성의 성역할태도, 가구의 주 생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애유형별 일과 가족역할의 의미를 조망하고 있다.

핵심단어: 생애유형, M자형 취업곡선, 저출산, 사건연쇄분석(Event-Sequence Analysis)

* 이 연구는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1-C00306)과 일본 문부성 지원의 '동아시아 가족과 젠더' 국제지역비교 연구(2001-2003)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논문수정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동아대 사회학과

*** 부산대 박사과정

I. 머리말

최근의 인구 변동은 한국 여성 생애에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출산률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인구대체 수준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1). 급격한 출산력 감소의 퍼즐은 인구학자들의 주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권태환 · 김두섭, 2001; 전광희, 2003; 조남훈 · 김승권 · 조애저 · 장영식 · 오영희, 1997; 은기수, 2001). 인구학자는 출산력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결혼 연령이나 피임 실천, 이혼률과 같은 중간변수(proximate variables)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Davis and Blake, 1956; Bongaarts, 1978). 국내의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한국여성의 출산력 감소는 피임실천의 확대와 인공유산, 그리고 결혼연령 상승의 복합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권태환, 1978; 권태환 · 김두섭, 2001). 그런데 이와 같은 중간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시기에 따라 변하였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력의 제일 요인은 결혼연령의 상승효과에 따른다고 밝혀졌다(전광희, 2003).

일반적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 행위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지난 몇 십년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주로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것이며, 그 변화 양도 별로 크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제 일은 여성 생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은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과 집중적 양육시기에 여성의 노동기회가 크게 제한됨을 나타낸다고 지적되고 있다. 행위수준에서 여성취업상태에 관한 여러 연구들도 여성의 취업과 가족역할사이에 부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재열, 1996; 김영옥, 1999). 여성이 취업을 지속하는 여부는 교육, 훈련, 근속기간과 같은 인적자본보다 출산과 육아와 같은 가족역할에 의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장지연, 2001; 박수미, 2002). 또한 가족역할에 따른 경력단절은 여성의 노동지위를 제약하는 결과를 조장한다고 논의되고 있다(정영애, 1996; 강세영, 1995; 남춘호, 2001).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일과 가족 형성 행위가 크게 변화되었으며 또한 두 역

할 사이에 대립 관계가 관찰되는 현재, 한국 여성은 일과 가족 역할사이 어떠한 시간적 배분과정을 통해 고유한 생애과정을 구성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제 4차 여성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당시 15세에서 6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초혼, 출산, 첫직업, 이직, 재고용, 마지막 일자리와 은퇴에 이르기까지 가족 및 노동 역할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 생애의 유형적 특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둘째, 생애유형의 변화와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적자본과 성역할태도 및 코호트와 같은 주요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생애특성이 함축하고 있는 한국여성의 일과 가족역할의 의미를 조망한다.

II. 선행 연구

1. 여성의 가족 형성 행위의 변화

한국 여성의 출산력은 196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가임연령 여성의 총출산률(TFR)이 1960-1965년 6명에서 1975년에는 3.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1983년 이후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전광희, 2003). 2000년의 총출산률은 1.47명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인 1.58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십년 전 만해도 과도한 인구성장이 우려되었고, 출산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박상태, 1999). 그런데 지금은 지나치게 낮은 출산력이 경제활력과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산력 감소를 조성한 주요 요인은 시기적으로 변화되었다. 지난 60-80년대 이루어진 급속한 도시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은 출산력 감소의 주요한 사회적 동인이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출산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경기악화에 따라 젊은층의 고용불안과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족형성 행위가 지연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의 출산력 감소에는 무엇보다 국가의 강력한 출산통제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쳐 한국 정부는 피임지식을 널리 홍보

· 교육하고 피임의료행위를 권장하였으며, 소자녀 가정에 다양한 세금공제를 제공하였다. '3년마다 세 명의 자녀를 35세까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기,' 등 1960년대와 1970-80년대 정부에 의해 널리 홍보된 가족계획 표어에는 소자녀관 가치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지속적인 출산감소는 또한 가족 가치관과 자녀관의 혁신적 변화를 함축하였다. 농업중심 가족에서 집안의 주요 노동력이었던 자녀의 가치는 점차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소비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변화되었다. 개별가족에서 원하는 이상 자녀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소자녀관은 산업화와 도시화, 근대가족관계의 발달, 그리고 근대가족 형성에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복합적 결과로 한국인의 집합적 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출산력을 연구하는 국내외 인구학자들은 출산력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중간변수'의 시기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권태환 · 김두섭, 2001; 전광희, 2003; 조남훈 외, 1997; Davis and Blake, 1956; Bongaarts, 1978). 중간변수는 임신, 출산,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혼인연령, 인공유산, 피임, 이혼, 배우자사별 등의 변수를 가리킨다. 전광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2002) 1970년대 전반까지는 혼인연령과 인공유산의 증가가 출산력변천을 주도한 반면 1975년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피임실천의 효과가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 이후 지속된 저출산의 제일 요인은 결혼연령의 상승이다.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은 1960년 21.5세에서 2000년 26.5세로 크게 늦어지고 있다. 결혼연령이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배우자의 구성비 변화와 출산시기의 변화에서 비롯한다. 출산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20대 후반의 미혼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여성의 출산률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산기간이 압축되거나 출산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은기수, 2001).

2. M자형 취업곡선의 퍼즐

총 자녀수의 급감, 첫 자녀에서 막내자녀까지의 출산기간의 압축, 결혼연령의 연장은 여성 생애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가 함축하는 여성 생애 변화의 또 다른 모습이 경제활동에서 목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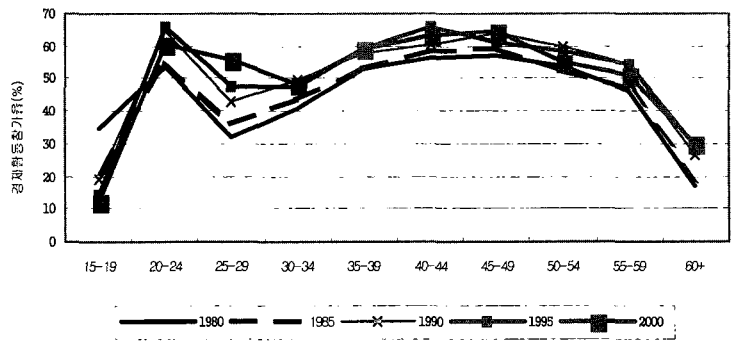
주지하는 사실이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향상되었다. 1966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 수준에 그쳤으나, 1980년에는 42.8%, 1990년에는 47%, 그리고 IMF 직전에는 49.5%까지 증가하였다. IMF 경제 위기 직후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다시 개선되어 2000년 48.3%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패턴도 변하였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취업률이 급감하는 시기가 점차 압축되고 있다(<그림 1>).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취업률 변화가 가장 큰 연령집단은 25-29세이다. 1980년 25-29세 여성의 취업률은 32%에서 2000년 55.9%로 무려 23.9% 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과 2000년 사이 이 연령집단에서 취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대 후반 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만혼현상과 밀접히 연관된다. 30-34세에서의 취업률은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이후에는 변화가 완만하다.

M자형 취업곡선이 변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 취업자의 결혼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태홍, 2000). 다른 한편에서는 20대 후반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향상되고 있지만 이것이 여성 노동기회의 질적인 개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김병조 · 김순영(1996)은 30대 후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결혼 전에 노동경력이 없는 여성들도 다수 존재하며, 결혼 전과 결혼 이후에 노동에 참가하는 인구는 이질적인 집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은 취업연속성이 개선된 때문이 아니라 취업경력이 짧은 신규 진입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옥, 1999).

〈그림 1〉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3. 가족역할과 일의 관계의 재고찰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한편 M자형의 연령별 취업곡선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 여성의 일과 가족역할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작용함을 함축한다. 실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의 일과 가족역할 사이에 대립적 관계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증거를 밝히고 있다.

여성의 취업행위에 개인의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본보다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나 가족 역할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장지연, 2001; 이재열, 1996). 특히, 결혼 및 출산은 여성 생애의 중요한 역할로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수미, 2002). 기혼 여성들은 미혼여성보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문유경, 1998), 실제 시간제 근로자에게 제안되는 고용시간이나 임금조건으로서는 가족역할과의 양립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영애, 1996).

가족역할에 기인한 여성노동자의 취업불연속성이나 짧은 경력은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의 주변적 위치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취업단절과 경력 불안의 주요 원인이 인적자본보다 여성의 가족 역할에 기인한다면, 여성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히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양육과 가사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신경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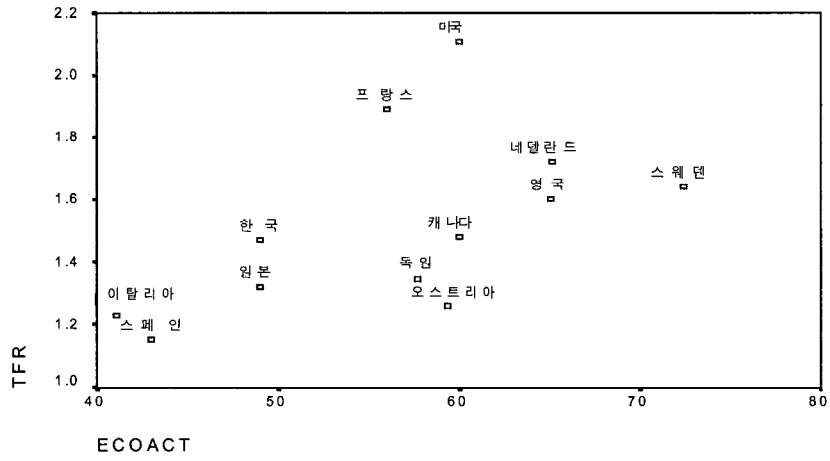
시카고학파를 위시한 경제학적 연구들은 여성의 가족역할과 노동역할 사이의 부의 관계를 두 역할의 가치(효용) 비교의 입장에서 설명한다(Becker, 1981). 소득이 있는 일을 하거나 집에서 가사, 양육, 부양 등의 가족역할을 하는 것은 모두 가치 있는 활동이다. 두 역할 사이의 시간분배는 시간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가치를 최적화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개인이 일과 가족역할에 배분하는 시간은 시장제의가치와 유보임금(reserved wage)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유보임금이란 여성이 가족역할에 부여하는 가치를 가리킨다. 자녀양육기에는 특히 유보임금의 가치가 매우 크며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가치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가족역할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노동-가족 역할의 효용가치론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복지수준이 노동시장 지위에 크게 의존된 상황에서 주된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가사일 참여가 이루어지

기 힘들다고 주장한다(Boje and Leira, 2000). 또한 현재의 저출산 현상과 가족 관계 변화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사회참여 증가의 효과가 큼을 강조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할수록 출산이나 재생산 역할의 가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는 집합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규범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육아에 대한 가치나 일에 대한 가치는 개별 개인의 인적 특성과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집합심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족역할의 관계는 사회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그림 2>).

〈그림 2〉 주요 OECD 국가에서 여성의 취업률과 TFR



자료: Eurostat, 2003. Statistics of Canada, 2002.
주: TFR은 2000년도 수치이며 취업률(ECOACT)은 2001년 동일 연령여성 중 취업한 여성의 비율임.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구미사회에 비교하여 여성의 출산률도 낮고 경제활동참여율도 낮다.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곳에서 출산률도 높은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율적인 행위선택자로서의 접근은 일과 가족 역할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게 발전되는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록 지난 3-40년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크게 신장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기준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편에 속한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최근까지 크게 제한되었다(민경희, 2003). 1960년대 이래 남녀 교육수준의 갭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정작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기여한 정도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경제활동참여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또한 양육에의 어머니의 책임이나 모성가치가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데에는 성별역할분리를 구조화하는 문화, 경제, 정치적 요인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신유교주의 이념은 가족과 사회관계에서 남녀의 역할분리를 강조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직계가족이나 가부장/부계주의적 가족이념과 가족관계가 조직화되었고 가족주의 인간관계는 사회관계에도 확대되어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미분화되고, 친소의식과 연고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최재석, 2002; 135).

근대화과정도 성별 역할분리를 고착시킨 주요한 사회변동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서구사회의 근대가족의 특징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자본제가 발달되면서 가족과 외부사회와의 분리가 뚜렷해졌고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응집성이 강화된 동시에 가족 및 사회관계에서 성역할분리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Parsons and Bales, 1956, Shorter, 1975; Zaretsky, 1973). 한편 아시아 사회의 고유한 근대화 맥락에서 근대가족의 특성을 재조명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山根眞理, 1998). 토요타자동차에 근무하는 노동자 가족을 연구한 키모토키미코(木本喜美子, 1995)는 일본의 기업사회와 근대가족 사이에는 공조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기업은 안정된 노동력 확보를 위하여 가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성역할 분리적인 근대가족이념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형 근대가족에서는 물질우선주의 가치관이 강하며 근대가족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가족성원간의 강한 정서적 관계가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 가족의 형성은 자본제의 발달이나 기업사회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발달된 근대가족에 비해 훨씬 노동 및 성 억압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논의된다(장경섭, 1998).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가족의 재생산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지금까지 매우 취약하며 재생산역할의 가족화는 여성과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논의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박경숙, 2003).

III.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가족-노동 역할의 시간적 배분과정을 통한 여성 생애 특성의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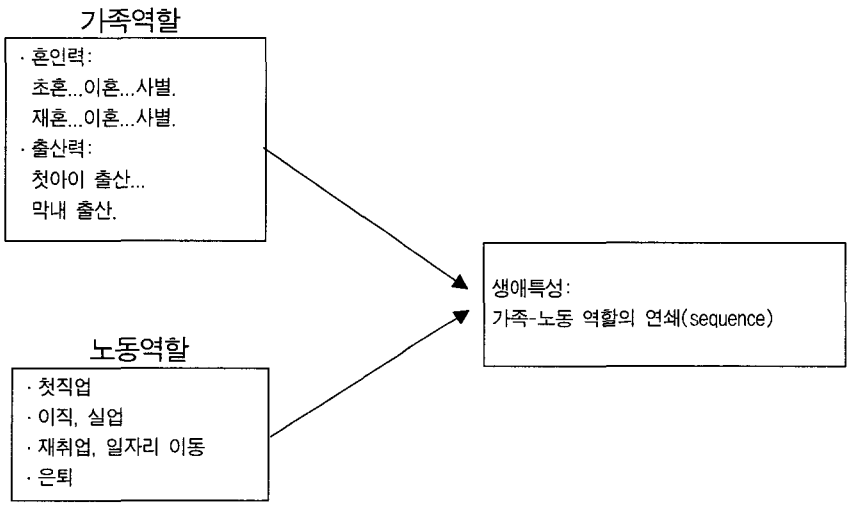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 행위가 동시적으로 크게 변하였다는 것은 두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로 노동에의 욕구가 결혼연장과 저출산을 유도하였는가, 역으로 가족 역할이 어떻게 경력단절을 초래하였는가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단순하지 않다. M자형 취업곡선의 변화에 대한 상충된 주장은 여성생애에서 일과 가족역할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젠더관계의 문화·노동·정치적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과 가족역할에 대한 가치는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사회규범으로서 또한 주체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구조화된다. 또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압축적 변동에서 많은 여성은 다양한 젠더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여성내부에서 가족역할과 일 경험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다(강이수, 2001; 정원오, 1995). 일과 가족역할의 다양한 경험은 여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함축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생애구성적 관점에서 한국여성에게 일과 가족역할이 지니는 의미와 두 역할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일과 가족 역할의 시간적 연쇄과정을 통해 고유한 생애경험이 발전되고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생애는 지속성과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한편으로 현재 혹은 미래의 행위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애경로에서 크게 이탈된 선택을 취하기 힘들다. 횡단적으로 포착되는 여성 경험의 다양성은 동시적인 공변인에 의해 조성된 결과이기보다는 시간 갭을 둔 과거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생애의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건 연쇄분석 접근(Event-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고 있다. 사건 연쇄분석은 직업이동, 조직변화, 청소년기 역할 변화, 노년기 퇴직과정을 포괄하여 개인과 조직의 변화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Abott, 1983; Blair-Loy, 1999; Han and Moen, 1999). 국내에서는 은기수(1999), 한준·장지연(2000) 등에 의해 소개되었다. 은기수(1999)는 기술적 수준에서 생애사건을 배열한 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이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생애와 비정상적인 생애를 구분하였다. 한준·장지연(2000)은 T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임금근로자의 노동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역할과 노동역할의 시간적 배열특성에 기초하여 한국 여성의 생애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3>). 주요 가족역할로서 결혼 및 출산력과 첫직업, 이직·실업, 그리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혹은 은퇴)에 이르는 노동력의 시간적 선후관계로 종합하여 가족-노동 역할의 연쇄과정(Sequence)의 유형적 특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림 3〉 가족-노동 역할의 생애 분석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여성 생애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생애 이질성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도 유의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생애특성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코호트에 따라 생애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 밖에 여성의 결혼, 출산, 노동 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적자본(교육수준), 성역할태도(어머니의 취업, 남편과 여성의 성역할태도), 가구경제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한국 여성의 가족-노동 역할의 생애구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

발원이 실시한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2002)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의 주요 설문대상은 전국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이다. 여성의 정보는 가구원표, 일반 여성 설문조사표, 15세에서 조사 당시까지 이루어진 결혼, 출산, 취업 상태의 변화를 묻는 설문지로부터 추출하였다. 가구 질문표로부터 여성과 기혼시 남편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가구표로부터 추출된 여성 사례수는 5,720명이었으나 학생이 아닌 여성 사례는 4,758명이다. 이 중 측정오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4,722 명의 여성 자료를 확보하였다. 배우자의 정보는 가구표로부터 추출하였다. 배우자 정보를 포함한 사례는 3,116명이다.

결혼, 출산, 취업상태의 변화는 각 연령에서 조사된 사건 정보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원 조사에서는 결혼상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매 연령에서 초혼시기, 이혼, 재혼, 사별의 사건이 발생하였는가를 묻고 있다. 출산력에 대해서는 첫 자녀의 출산으로부터 네 번째 자녀 출산 시기까지의 정보를 묻고 있다. 출산력 정보를 네 번째 자녀까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총 출산력을 완전히 측정할 수 없었다. 취업력 조사는 종사상 지위와 업종 그리고 직종 상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취업력을 결혼 및 출산력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 종류의 취업력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종사상 지위 변화에 국한하여 노동지위변화를 측정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표 1>은 조사대상 여성의 일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조사 대상 여성의 평균 연령은 39.3세이며 가구의 생업이 농업인 비율은 11.0%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이 41.5%로 가장 높으며 전문대 이상 비율은 26.0%이다. 기혼시 현재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이 40.5%이며 전문대 이상 비율이 32.2%이다. 조사 대상 여성 중 초혼 경험이 있는 여성은 74.5% 이다. 초혼 연령은 24.5세이고 초혼경험이 있는 여성 중 이혼을 경험한 여성은 3.9%이다. 첫 자녀 출산 연령은 25.8세이다. 이 조사 자료에서는 넷째 자녀까지의 출산력이 최대한으로 관찰할 수 있는 출산력 정보이다. 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출산력 정보에 기초할 때, 첫 아이에서 막내 출산까지 평균 4.5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는 총 1.6명이다. 흥미로운 점은 15세 이후 조사 시점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73.1%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일 시점에서 여러 연령계층 여성의 경활률을 평균한 수치에 비하여 훨씬 크다. 처음 일자리를 가진 시기는 평균 24.7 세로 나타난다.

〈표 1〉 조사 대상 여성의 일반 특성

전체 사례 수 N	4,722
평균연령 (세)	39.3
농업비율 (%)	11.0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상 비율 (%)	41.5
전문대학교 이상 비율(%)	26.0
유배우시 남편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상 비율 (%)	40.5
전문대학교 이상 비율 (%)	32.2
초혼	
초혼율 (%)	74.5
초혼시 초혼연령 (세)	24.5
초혼시 이혼율 (%)	3.9
출산	
첫아이 출산 연령 (세)	25.8
총 출산 자녀수 (명)	1.6
첫 출산에서 마지막 출산까지의 기간 (년)	4.5
일	
일한 경험 (%)	73.1
첫 일자리 시기 (세)	24.7

IV. 한국 여성의 생애유형의 변화와 이질성

1.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결혼, 출산, 일 역할의 발생시기와 지속성을 조합해 본 결과 여성 생애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표 2>). 각 생애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가족역할과 일의 연쇄(Sequence) 유형						
		지연된 가족형성	일가족 중복	M자형	잠재M형	양육후 입직	가족중심	성인 이전기
	평균연령	27.7	48.0	42.7	37.6	48.9	49.5	19.8
M	초혼연령	-	23.7	25.1	26.2	23.2	23.7	-
C	첫아이출산 연령	-	24.9	26.3	27.4	24.6	25.1	-
	막내출산연령	-	29.3	29.2	29.8	28.6	29.2	-
	총출산기간	-	5.4	4.0	3.4	5.0	5.2	-
	총자녀수	-	2.4	2.0	1.8	2.4	2.4	-
W	첫입직연령	22.3	20.7	19.9	20.9	36.6	-	-
	마지막일자리연령	27.0	46.7	41.5	25.4	47.0	-	-
	총노동기간	4.7	26.0	21.6	4.5	10.4	-	-
	일자리변화여부	16.4	27.7	100.0	6.1	16.7	-	-
	경력단절여부(@)	10.7	0.0	100.0	2.0	8.3	-	-
	총경력단절기간	0.4	0.0	10.0	0.0	0.4	-	-
S	생애과정	W@W	WMCW	WM@C @CW	W@MCC	MCCW@ W	MCC	..
계	%(N=4,701)	11.5	10.3	13.9	20.1	17.6	12.9	14.1
	%(기혼여성)	-	13.7	18.6	26.9	23.5	17.3	-

I. 결혼전 일 중심, 지연된 가족 형성: 일자리 경험은 있지만, 결혼, 출산은 아직 진행되지 않음. 11.5%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은 일 중심의 생애를 특징으로 한다. 아직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다. 평균 연령은 27.7세로서 대부분 20대이지만, 30대 이상의 여성 비율도 27%에 이르렀다. 처음 입직 연령은 22.3세이며 최종 일자리에서의 연령은 27세로서 총 노동기간은 4.7년이다.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는 상용직이다. 일자리 이동이나 휴직 경험은 1년 미만이다.

<사례 1> 현재 나이 28세. 대학교 중퇴/졸업. 26세에 일 시작함. 미혼임. 현재까지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음.

<사례 2> 현재 나이 30세. 고등학교 중퇴/졸업. 20세에 일 시작함. 미혼임. 3년 일

을 쉬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음. 1년은 임시직으로 일하였고, 7년간 상용직으로 일함.

II. 일·가족 역할 중복형: 첫 입직 연령 < 초혼 연령 &
최종 일자리 연령 >= 마지막 자녀 출산 연령 &
첫 입직에서 최종 일자리까지 공백기가 없음. 10.3%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평균 연령은 48세이다. 결혼과 양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초혼연령은 23.7세이며, 첫 아이 출산 연령은 24.9세이며, 막내 자녀 출생까지 평균 5.4년을 소요하였다. 평균 자녀수는 2.4 명이다. 입직 연령은 20.7세이며, 최종 일자리에서의 연령은 46.7세이며, 조사 시점까지 일하고 있었다. 총 노동기간 동안 한번도 쉬지 않았으며 종사상 지위의 변화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가장 지속기간이 긴 종사상지위는 무급 가족종사자이다. 또한 이 유형은 농업가구에 속한 여성에서 흔히 관찰되었다.

<사례 3> 현재 나이 53세. 초등학교 교육수준. 15세에 일 시작함. 22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23세에, 막내는 27살에 출산함. 총 자녀는 3명임. 일은 15세에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일하고 있음. 중간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으며 가족종사자로 일함.

<사례 4> 현재 나이 45세. 대학원 중퇴/졸업. 24세에 일 시작함. 결혼은 30세에 함. 첫 아이는 31살에, 막내는 33세에 출산함. 총 자녀는 두 명임. 일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24세임. 결혼, 출산기간에도 일을 쉬지 않음. 임시직을 4년간 하였고, 18년 동안 상용직으로 일함.

III. M자형: 첫 입직연령 < 초혼 연령 &
최종 일자리 연령 > 마지막 자녀 출산 연령 &
첫 입직연령에서 최종 일자리사이 공백기가 1회 이상 존재. 13.9%

전형적인 M자형 노동경력을 나타내는 여성이 해당된다. 평균 연령은 42.7세

로서, 30대와 40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혼 연령은 평균 25.1세이며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첫 아이는 26.3세에 출산하였으며, 첫 아이와 막내 자녀 출산사이에 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처음 입직 연령은 19.9세이며 최종 일자리에서 연령은 41.5세이다. 총 노동기간 중 1회 이상 일을 그만두었으며 평균 10년 동안 경력 단절을 경험하였다. 종사상 지위에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이 가장 오래 머문 상태는 정규 임금근로자이다.

<사례 5> 현재 나이 36세임. 전문대학 중퇴 혹은 졸업. 23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24세에, 막내는 26살에 출산함. 총 자녀는 2명임. 일은 23세에 시작함. 정규직으로 2년 일하다가 결혼, 양육기 동안 10년을 쉼. 현재 무급 가족종사자로 2년간 일하고 있음.

<사례 6> 현재 나이 47세. 고등학교 중퇴/졸업. 결혼은 28세에 함. 첫 아이는 29살에, 막내는 31세에 낳음. 총 자녀는 두 명임. 일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9세임. 양육기간 동안 7년간 일을 쉼. 결혼 전에는 정규직으로 9년간 일하였고 양육 후에는 자영업에 13년간 일하고 있음.

<사례 7> 현재 나이 57세.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결혼은 23세에 함. 첫 아이는 24살에, 막내는 33살에 낳음. 총 자녀수는 3명임. 일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5세임. 결혼 전에는 가족종사자로 8년간 일하였으며, 결혼후 양육기간 동안 19년 쉬고 13년간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음.

IV. 결혼과 육아와 동시에 일 그만둠 (잠재 M형): 첫 입직 연령<초혼연령 & 최종 일자리 연령 < 결혼 혹은 마지막 자녀 출생 연령. 20.1%

결혼이나 육아와 동시에 일을 그만둔 여성이 해당된다. 평균 연령은 37.6세이며 주로 30대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보다는 육아와 함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흔하다. 초혼은 26.2세에 하였으며 첫 자녀는 27.4세에 출산하였다. 평균 1.8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막내 출산까지 3.4년을 보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양육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40대의 비율도 높은 점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포기한 여성들도 이 집단에 상당수 포함된다. 입직 연령은 20.9세이며 최종 일자리에서의 연령은 25.4세로 경력이 가장 짧다. 대다수가 미

혼시 정규 임금근로자로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례 8> 현재 나이 28세.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26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26세에, 막내는 28세에 낳음. 일은 24세에 시작하여 3년간 상용직으로 결혼 전까지 함.

<사례 9> 현재 나이 33세.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29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30세에, 막내는 32세에 낳음. 일은 26세에 시작하여 결혼 전까지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함.

<사례 10> 현재 나이 45세.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27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28세에 출산. 막내는 29세에 낳음. 일은 20세에 시작하여 결혼 전까지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함.

V. 양육 이후 입직형: 첫 입직연령 >= 마지막 자녀 출생 연령, 17.6%

미혼시 일한 경험이 없다가 결혼 이후나 자녀 양육 이후에 처음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이 해당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48.9세이다. 초혼 연령은 23.2세이며 첫 아이는 24.6세에 출산하였다. 평균 2.4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첫 아이 출산부터 막내 출산까지 평균 5년 소요하였다. 첫 일자리는 36.6세에 시작하였으며 최종 일자리에서의 연령은 47.0세이다. 총 노동기간 사이에 휴직한 기간은 1년 미만이며 종사상 지위에 변화가 별로 크지 않다. 이 집단에 속하는 여성은 자영, 가족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에 걸쳐 다양한 종사상 지위를 경험하였다.

<사례 11> 현재 나이 45세.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23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25세에 출산함. 일은 33세에 시작함. 무급 가족종사자로 11년간 일하고 있음.

<사례 12> 현재 나이 56세. 고등학교 중퇴/졸업. 결혼은 27세에 함. 첫 아이는 30살에 낳음. 51세에 자영업을 시작함.

VI. 가족 중심형: 일한 경험 없음. 초혼 경험 있음. 12.9%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가장 근접한 유형으로서 결혼 전후 일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해당된다. 평균연령은 49.5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이다. 결혼시기도 23.7세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빠르다. 첫 자녀 출산 연령은 25.1세이며, 총 자녀수는 평균 2.4명이며, 첫 아이출산부터 막내 출산까지의 기간은 평균 5.2년으로 총 출산기간이 길다.

<사례 13> 현재 나이 47세.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21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23세에, 막내는 27살에 낳음. 일한 경험이 전혀 없음.

<사례 14> 현재 나이 56세.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23살에 결혼함. 첫 자녀는 27세에, 막내는 32살에 낳음. 일한 경험이 전혀 없음.

VII. 성인이전기: 첫 직장, 초혼, 첫 자녀 출생 모두 진행되지 않음. 14.1%

마지막으로, 일과 결혼으로 이행하기 이전의 기간에 해당되는 여성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19.8세이다.

종합하면, 각 생애 유형은 가족역할과 노동 역할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순서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 성인 이전기(VII)나 결혼전 일중심(I) 생애 유형은 주로 젊은 여성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유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유형으로 이행하는 생애 전기적 특성을 띤다.

평균 연령이 가장 많은 집단은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유형(VI)에 속한 여성이다. 일·가족 중복형(II)과 양육 후 입직형(V)에 속한 여성의 평균 연령도 40대 후반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M자형이나 결혼/육아와 동시에 일을 그만 둔 잠재 M형에 속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주를 이룬다.

기혼 여성이 속한 다섯 형태의 생애 유형은 결혼, 출산, 일의 선후관계가 중요하게 대비된다. 양육후 입직형(V)은 초혼 연령이 매우 빠르다.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집단의 초혼 연령도 상당히 빠르다. 초혼 연령이 가장 느린 집단은 M

자형과 잠재 M형에 속한 여성이다. 특히 육아와 동시에 일을 그만둔 여성집단(잠재 M형)은 초혼연령이 가장 느리게 나타난다. 이 유형에 속한 여성은 평균 연령이 가장 적으며, 결혼 연령이 M형의 여성보다 늦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육아 이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M자형의 궤적을 밟을 잠재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결혼 코호트와 사회집단별 기혼 여성 생애 유형의 차이

기혼 여성의 생애 유형 분포는 결혼 코호트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표 3>). 일·가족 중복형은 1980년대까지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감추이는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특성이 크게 변하였음을 시사한다. 1980년대까지 이 유형은 주로 농가 여성에 의해 대표된다. 전체 취업여성 중 농가여성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유형의 상대적 비중도 감소하였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일·가족 중복형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은 최근 전문직이나 공무원과 같은 임금직종에서 육아기에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증가한 결과에 따를 수 있다.

〈표 3〉 결혼 코호트별 생애 유형의 상대 분포

	결혼시기				
	〈=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4	〉=1995
일가족 중복	23.3	14.0	8.4	12.7	10.9
M형	6.7	19.3	28.4	22.5	11.3
잠재M형	5.6	11.5	24.4	46.4	68.4
양육후입직	35.4	34.0	24.1	9.6	2.8
가족중심	29.0	21.2	14.8	8.8	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육아 이후 일로 복직한 M자형은 1980년대 까지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1990년대 결혼 코호트에서 비율이 감소한 것은 최근 코호트의 관찰기간이 짧은 때문일 수 있다. 1990년대 결혼 코호트에서 잠재 M형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관찰기간이 짧기 때문일 수 있다. M형과 잠재M형의 비중을 합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결혼 전 일에 종사하였다가 결혼/육아와 함께 경력 단절을 경험한 뒤 노동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양육 후 처음 일에 종사한 여성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결혼 코호트에서 매

우 높게 나타난다. 이 유형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그 경향이 감소하고 있다. 생애를 통해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감소하고 있다.

결혼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는 총량수준(aggregate level)에서 M자형 취업형태가 완만해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요컨대 총량수준에서 M자형 연령별 취업곡선이 완만해지고 있는 것은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개선된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선되어서라기보다는 이 연령대의 만혼화 현상과 더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M자형 생애가 강화되고 양육 후 처음 일하는 생애 유형이 약화되는 경향은 또한 기혼 여성 취업자의 특성에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기혼 여성 중에는 결혼 전에 노동경험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미혼과 기혼 여성 노동자는 서로 이질적인 집단임을 강조하였다(김병조 · 김순영, 1996; 김영옥, 1999). 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의 적합성은 시기적으로 제한된다. 결혼 후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의 비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결혼코호트에서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결혼 코호트로 올수록 그 구성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조적으로 최근 결혼코호트로 올수록 기혼여성 노동은 결혼/양육기 동안의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복귀한 여성에 의해 대표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상이한 생애 유형은 결혼연령, 출산연령, 입직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 시기적 변화는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표 4>). 모든 생애 유형에서 결혼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만혼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첫 출산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첫 입직연령은 양육 이후 일한 유형을 제외하면 평균 2-3년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양육 후 일하는 여성의 경우 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크게 앞당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 코호트에 속한 여성 사이에 생애 유형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표 5>에서는 코호트 차이를 통제하였을 때 생애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된 기법은 다항로짓분석이다. 미혼상태에 제한된 두 생애 유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결혼/양육 후 일을 그만둔 유형(잠재M형)은 M형과 동일한 범주로 묶었다.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가장 근접한 전혀 일 경험 없는 가족중심형으로 측정하였다. 표에 제시된 계수는 공변인 x의 단위 변화나 해당 변수 값에서 특정 생애 유형에

〈표 4〉 결혼 코호트와 생애 유형별 결혼, 첫 출산, 첫 입직 연령

기혼여성의 생애		결혼시기					
		〈=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4	〉=1995	변화
일가족 중복	결혼연령	20.9	23.5	25.7	26.7	26.7	5.8
	첫출산연령	22.6	24.6	26.8	27.7	27.6	5.0
	첫입직연령	19.0	20.8	21.6	22.5	22.0	3.0
M형	결혼연령	22.5	24.1	25.2	26.3	26.6	3.5
	첫출산연령	25.5	26.3	27.6	27.5	27.5	2.0
	첫입직연령	17.9	19.1	20.2	20.6	21.2	3.3
잠재 M형	결혼연령	23.3	25.2	25.7	26.3	27.1	3.8
	첫출산연령	24.9	27.0	27.2	27.5	28.0	3.1
	첫입직연령	19.0	20.1	20.8	21.0	21.3	2.3
양육후 입직	결혼연령	21.8	23.0	24.4	25.4	24.3	2.5
	첫출산연령	23.6	24.5	25.7	26.0	24.5	0.9
	첫입직연령	39.2	37.0	34.8	30.6	26.9	-12.3
가족중심형	결혼연령	22.1	23.9	24.6	25.6	26.5	4.4
(일경험없음)	첫출산연령	24.0	25.1	25.5	27.0	27.3	3.3
	첫입직연령	-	-	-	-	-	

속할 확률의 승수비(로그값)을 나타낸다.

결혼 코호트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1980년대에 결혼한 코호트와 비교하여 1990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 일가족 중복형의 승수비가 더 크게 추정된다. 이전 결혼 코호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구의 생업 변수에 의해 농촌 여성의 구성이 통제된 때문이라 판단된다. M형에 속한 여성의 승수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표 5〉 기혼 여성의 생애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생애유형 기준: 가족중심형(일경험없음)		
		일가족중복	M 형	양육후 입직
결혼 코호트	1960년대 이전	-0.18	-1.67	-0.48
	1970-1979	-0.06	-0.75	-0.13
	1980-1989 (기준)	-	-	-
	1990-1994	0.73	0.68	-0.41
	1995+	1.10	1.37	-1.41
교육수준	초등학교 (기준)	-	-	-
	중학교	-0.80	0.09	-0.19
	고등	-0.02	0.57	0.35
	대학	0.92	-0.02	0.05
가구생업	농업	3.21	0.84	1.11
	비농업 (기준)	-	-	-
어머니의 일	취업	0.78	0.51	0.47
	비취업 (기준)	-	-	-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기준)	-	-	-
	고등학교이상	-0.19	-0.09	-0.00
남편의 소득	1: 저<->10: 고	-0.03	0.03	-0.06
남편의 교육	초등학교 (기준)	-	-	-
	중학교	0.17	0.16	0.01
	고등학교	0.07	0.26	0.20
	대학교	0.24	0.52	-0.60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1:반대<->5:찬성	1.06	0.46	0.86
전통적 성역할태도	1:약<->10:강	-0.06	-0.05	-0.05
상수		-4.78	-1.01	-2.06
R^2			0.21	
N			2,823	

주: 밑줄 친 계수는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일과 가족역할에 대한 태도 문항 10개를 요인분석하여 구한 요인점수 값(10분위값)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과 가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승수비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추정된다. 이는 일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이 고학력 전문직종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M형에 속하는 여성의 승수비도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추정된다.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에 속한 여성의 생애형태가 크게 대조된다. 일가족중복형과 M자형, 그리고 양육후입직한 여성의 승수비는 비농가여성보다 농가여성에서 통계적으로 더 크게 추정된다. 농가에 속한 여성 중 일경험이 없이 가족역할에만 전념한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된다. 농업가구에 속한 여성의 대부분은 가족역할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적어도 양육 이후에 가구의 일을 돕는 생애를 보내는 개연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경험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에 제시된 세 유형은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지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집단을 가리키는데, 이 세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승수비는 여성의 어머니가 취업한 경험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게 추정된다. 이는 성장기 일하는 여성의 역할 모델이 존재하였는가 여부가 여성의 성인기 이후 취업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편의 소득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 이후 처음 일하는 여성의 승수비가 낮게 추정된다. 결혼 전에 취업경험이 없다가, 가족생활 중 일자리를 갖는 것은 대체로 가구의 생계 문제에 비롯하였을 수 있다.

여성의 생애 유형은 부인의 일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남편이 아내의 일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강할수록 결혼 후에도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승수비가 커진다. 특히 일과 가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의 승수비가 가장 큰데 이는 일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의 남편은 부인 일에 대하여 지지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성역할태도도 생애 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강할수록 일・가족중복형이나 M형에 속하는 여성의 승수비는 감소한다고 추정된다.

정리하면 여성의 생애 유형은 인적자본과 성역할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과 가족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여성은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여성일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비록 이 분석에서는 결혼 코호트별 교육수준 효과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일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애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크게 제약되었다고 사료된

다. 고학력 여성의 다수가 M형에 속하는 것도 교육의 노동시장 가치가 제약됨을 시사한다.

성장기 일하는 여성의 역할모델의 존재는 여성이 일과 가족역할에 부여하는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결혼 후에도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여성자신이나 남편 모두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는 장기간의 사회화과정과 일-가족 역할의 구체적 생애 경험 속에서 재구성됨을 시사한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 여성의 생애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결혼, 출산, 노동활동의 시기와 순서 그리고 지속성의 특성을 조합하여 한국 여성의 생애 특성을 유형화 하였다. 또한 생애 유형의 시기적 변화와 집단간 차이에 유의하면서 결혼 코호트와 여성의 개인·가족 특성에 따라 생애 유형이 어떻게 차이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혼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생애는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결혼 이후나 출산기간에도 쉬지 않고 일한 여성(일·가족역할 중복형), 결혼 전에 일하였지만 출산/육아기간 일을 그만두고, 공백기 이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 여성(M형), 결혼이나 출산 직후 일을 그만 둔 여성(잠재 M형), 결혼 전에 일한 경험이 없지만 결혼/육아 이후 일자리를 처음 가진 여성 (양육 후 입직형), 마지막으로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으로 나누어진다.

결혼코호트별로 생애 유형의 구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M형(잠재 M형 포함)이 지배적인 생애유형이 되고 있다. 양육 후 처음 일을 하거나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최근 결혼코호트일수록 감소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결혼한 여성에서 일가족 중복형의 생애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동일 코호트 내에서 살펴보면, 생애 유형은 성장기 일하는 여성의 역할 모델의 존재, 남편과 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구의 주 생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M형의 생애가 강화되고 있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이 경험적 증거에 기초할 때 최근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결혼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완화된 결과보다는 만혼화 현상

과 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만혼화와 저출산 그리고 기혼여성의 생애로서 M형의 생애특성이 강화되는 것은 여성에게 가족 역할과 노동 역할 사이에 갈등이 심함을 반영한다. 그런데 한국 여성에게 노동-가족 역할의 관계가 갈등적인 것은 여성의 일에 대한 정체성이나 독립성이 증대해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강제된 가족응집성의 긴장에서 비롯하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혼여성에게 가족은 일에 앞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모성은 여성의 주요한 정체성이 될 정도로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일차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취업경력에 관계없이 모성은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이다. 또한 결혼/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전혀 일한 경험이 없는 많은 여성이 취업의 제일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자녀양육이다. 양육 후 다시 일하는 이유도 자녀 교육비 보조 이유가 크다.

물론 일에 대한 가치지향이 높은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가족역할의 가치가 약화되고 가족/친족 유지역할을 회피하는 성향이 발달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혼 직장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족가치를 부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노동지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지위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과 가족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직장여성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으며 성차별 관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일과 부양역할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육아서비스에 대한 시장구매력이나 가족지원 조건을 지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생애 노동경험은 훨씬 보편화되었다. 또한 취업 장벽이 크더라도 당장의 가구 경제의 필요 때문에서라도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여성이 많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족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 자원이 제약되는데 있다. 육아 및 부양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매우 취약하며,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육아 및 부양서비스는 대체로 비용이 많이 든다. 결국 고가의 상품화된 부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별로 많지 않다. 많은 취업여성이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도움을 선호하고 있지만, 세대간 독립거주의 증가와 노부모세대의 가치변화와 함께 부모로부터의 가족지원 기회는 점점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의 일과 가족역할사이의 갈등이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성분리적인 젠더관계와 가족응집성의 긴장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현 출산장려정책이 지향하는 가족이념이나 정책 효과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된다. 결혼의

장애를 줄여주고, 기혼 여성의 일과 가족역할의 양립을 제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정책 방향 이면에는 출산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결혼-성-출산'의 삼위일체 이념이 전제되어 있다. 핵가족 혹은 직계가족 이념을 가족의 보편적 기준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출산과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가 약화된 가족관계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강제된 가족 응집성에 대한 사회 심리적 부담에서 비롯하고 있다면, 가족이념의 강조와 가족행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확대는 가족역할에 대한 회피나 거부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르기 쉽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M자형 생애 유형의 지배성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총량 수준에서 M자형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는 현상과 개인수준에서 M형의 생애유형이 증가하는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두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 M형이 과연 M형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이행기적 생애유형인지 아니면 그 자체 독특한 생애특성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강남식 · 백선희 (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의 자활지원사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17(2): 49-78.

강세영 (1995), "사업체 성별직종분리 요인의 분석," 《한국인구학》 18(1): 46-61.

강이수 (2001),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 《경제와 사회》 51권 가을호: 10-37.

권태환 (1978), "인구성장의 추세와 요인," 이해영 · 권태환 편,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권태환 · 김두섭 (2001),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병조 · 김순영 (1996), "한국의 여성시간제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경제와 사회》 31권 가을호: 159-178.

김수정 (2002),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 OECD국가의 가족지원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2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김승권 · 조애저 · 이삼식 · 김유경 · 송인주(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옥 (1999), "여성노동시장 이행의 결정요인," 《여성연구》 57권 겨울호: 113-134.
김태홍 (2000),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결정요인과 특징," 《여성연구》 59권 겨울호: 93-114.
남춘호 (2001), "성별직종격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누적불이익 모형대 회전문 가설," 《산업노동연구》 7(1): 115-156.
민경희 (2003), "노동력,"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pp. 393-428.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박상태 (1999),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인구학》 22(2): 5-45.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신경아 (2001), "노동시장과 모성, 가족의 문제; 남성중심적 노동자 모델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51권 가을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5),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은기수 (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6-70.
_____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40.
이재열 (1996), "여성이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1): 1-45.
장경섭 (1998), "여성, 시장, 공공가족으로서의 국가; 재생산의 사회화와 성질서," 《사회비평》 18: 298-327.
장지연 (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1권 가을호.
전광희 (2003), "출산력,"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pp. 81-114.
정영애 (1996), "시간제 노동과 성별분업: 시간제노동 논의에 관한 여성학적 비판," 《한국여성학》 12(1).

정원오 (1995), "지난 20년간 임금불평등의 변화추세; 집단간과 집단내의 임금 불평등의 변화," 《사회복지연구》 16: 70-89.

조남훈 · 김승권 · 조애저 · 장영식 · 오영희(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재석 (2002), 《한국 초기사회학과 가족의 연구》, 일지사.

테레사 쿨라빅 외 (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역, 새물결.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_____ (2002), KOSIS, http://www.nso.go.kr/.

한 준 · 장지연 (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주기," 《노동경제논집》 23(특별호): 33-53.

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山根眞理 (1998), "家族社會學におけるジェンダー研究の展開," 《家族社會學研究》 10: 5-29.

木本喜美子 (1995), 《家族・ジェンダー ・企業社會》, ミネルヴァ書房.

Abott, Andrew (1983), "Sequences of Social Events: Concepts an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Order in Social Processes," *Historical Methods* 16(4): 129-147.

Becker, Gary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Massachusetts, Cambridg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Blair-Loy, Mary (1999), "Career Patterns of Executive Women in Finance: An Optimal Matching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356-1397.

Boje, Thomas and Arnlaug Leira (2000),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s a New Division of Labou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ongaarts, J. (1978),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 105-132.

Davis, Kingsley and Judith Blake (1956), "Social Structure and Cultural Fertility: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3).

Donzelot, Jacques (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New York: Pantheon.

Eurostat (2003), http://europa.eu.int/comm.

Han, Shin-Kap and Phyllis Moen (1999), "Clocking out: Temporal Patterning of Reti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191-236.

Laslett, Barbara and Johanna Brenner (1989), "Gender and Social Reproduction: Histor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381-404.

Leira, Arnlaug (1989), *Models of Motherhood, Welfare State Policies and Every Day Practice: the Scandinavian Experience,* Oslo.

Orloff, Ann Shol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328.

Parsons, T. and R. Bales (1956),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Illionois: the Free Press.

Rindfuss, Ronald and Philip S. Morgan (1983), "Marriage, Sex and the First Birth Interval: The Quiet Revolu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2): 259-278.

Shorter, Edward (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Statistics of Canada (2002), *Health Status and Vital Statistics*, Statistics of Canada.

Zaretsky, Eli (1973),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 Colophon.